

수능까지 원격수업 권고... 고사장당 방역 담당관 4~5명

서울시교육청 수능관련 방침 마련
시험실 5387곳... 병원시험장 2곳
기저질환 학생 편의제공 검토예정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 시험장 학교와 시험실, 감독 요원을 늘리고 고3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각 학교에 권고한다.

서울지역에서는 다음 달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249개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9일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위해 11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249개



한 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10월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시험장과 2곳의 병원시험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험실은 총 5387곳이다. 올해 서울지역에서 수능을 치를 수험생은 10만6444명이다. 전국 수험생 49

만3433의 21.6%다. 11만7226명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수험생 수는 줄었지만, 시험장 학교수는 249곳으로 지난해(208곳)보다 41곳 늘었다. 또 시험실 수

도 5387곳으로 4407곳이던 지난해보다 980곳 더 확보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험감독 인력도 늘었다. 시험관계 요원으로는 중·고교 교장·교감·교사 2만4226명이 참여한다. 1만9083명이던 전년도보다 5100여명이 늘었다. 한 고사장 당 4~5명의 방역 담당관이 위촉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병원 시험장은 2곳으로 총 27병상이 마련됐다. A의료원에 11병상과 B 생활치료센터에 16병상이 확보됐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은 22개 시험장에 110실 440석(최대 770석)을 확보했으며,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로 분류된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

공간은 638실 2556석을 마련했다. 유증상자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최대 4473석까지 준비했다. 별도 시험실에는 기존 감독관 2명에 1명을 추가해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시험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데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의 제공을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병원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코로나19 음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12월 3일 수능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을 지참하고,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하나·현대카드 등 금융 대기업 채용 '속속'

인턴 우수 참가자 신입사원 선발
디지털·데이터분석 부문 등 모집

최근 카드, 은행, 증권 등 금융권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및 인턴십 채용이 등장하고 있다.

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하나카드, 하나캐피탈과 IBK기업은행, 교보증권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은 2021년 3월에 근무할 인턴사원을 모집 중이며, 해당 인턴십 참가자 중 평가 우수자는 최종 신입사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아래 금융권 대기업 각 기업별 채용공고를 소개한다.

하나카드는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해 오는 11월 20일 18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디지털·글로벌 ▲IT ▲자금운용 분야이고, 총 두 자릿수 규모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TOPCIT 400점 이상 점수 보유자는 '대분류 공학계열·자연계열' 전공자로 인정하며, 영어와 일어 성적우수자는 우대한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이후 필기

<금융 대기업 신입·인턴 채용> /잡코리아

기업명	모집구분	모집마감
하나카드	신입	11/20(18시)
하나캐피탈	신입	11/20(18시)
IBK기업은행	신입	11/23(14시)
현대카드	인턴 (정규전환)	11/26(14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교보증권	신입	11/27(17시)

전형(집합평가)이 진행된다.

하나캐피탈도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해 11월 20일 18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리테일 기획 및 마케팅 ▲글로벌 ▲디지털·데이터분석 부문이다.

IBK기업은행은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해 11월 23일 14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채용분야는 ▲금융영업 ▲디지털 ▲금융전문 ▲글로벌 분야이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CFA,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하여 가점이 부여된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이후 필기시험, AI역량검사, 실기시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은 인턴사원을 11월26일 14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관리 직군의 ▲상품 개발·마케팅 ▲영업기획·관리 ▲리스크 ▲재경·전략 ▲경영지원 ▲Brand ▲해외사업 분야다.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졸업예정자이며, 토익스피킹 레벨7 또는 오픽IH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에서 온라인 에세이 과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보증권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해 11월 27일 17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본사영업 ▲지점영업 ▲본사지원 ▲IT 부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보유자는 지원할 수 있고 전공, 성별, 나이 제한은 없다. 공인회계사, CFA, FRM 등 금융관련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이후 AI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집합면접, 임원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경성대 대학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서대

호서대 MOT, 경성대와 기업 문제해결 교육

충남권·경남권 주력산업 중심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MOT)은 글로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경성대 대학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서대 MOT와 경성대 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기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점 교류 ▲판로개척, 해외 진출 등 기업 현장문제해결 ▲융합기술

사업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상호 인력 교류 ▲융합기술 기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산학협력 추진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호서대 MOT는 충청권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족 기업의 우수 인력을 매년 신입생으로 유치해 기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ABL(Actual task-Based Learning)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 성과를 창출해주는 산학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현진 기자

니트로계 화합물 검출 '형광증폭 센서' 개발

김인수 성균관대·박정수 숙대 교수팀

성균관대는 김인수 약학과 교수(사진) 연구팀과 박정수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니트로계 폭발성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비울계량적 형광 증폭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니트로계 화합물은 대기 중의 산소 없이도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발열적으로 반응하는 폭발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폭발성 물질로는 트리니트로톨루엔(TNT) 및 니트로메탄 등이 있으며, 현재 화약을 비롯한 폭발물 제조를 위한 기본 원료로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니트로계 화합물은 항부정맥 치료제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알려져 있다. 강한 충격 및 가열에 의해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한 화합물이다. 연구팀은 형광단-초분자 결합체를 이용한 형광표시자 변위 검색법을 활용해, 다양한 니트로계 방향족 화합물에 선택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형광 증폭 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현진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코로나로 직장생활 변화 '好'

코로나19로 회식 자제나 재택 근무 등 직장 생활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직장인 192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66.5%가 '긍정적'이라고 밝혀 '부정적'(33.5%)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더 많았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70.1%로 가장 많았고, 20대(65.2%), 40대(62.7%), 50대 이상(59.8%)의 순이었다.

/이현진 기자

김대중도서관 케네디 의원에 보낸 YS 서한 공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귀국, 韓 민주화 위한 큰결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1985년 1월 7일 김영삼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 의장이 김대중의 안전귀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19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1985년 1월 7일 김영삼 민주협 공동의장이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영문편지이다. 김영삼은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의 귀국 결정은 한국 민주화를 위한 큰 결단이며 김대중의 귀국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위협하는 것(재수감, 귀국할 당시 불의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김영삼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사료는 민주화 운동 시기 김영삼-김대중 간 협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현진 기자